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은희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Liter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Eun-Hee Kim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2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D시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과 2학년 177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분산분석, Pearson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정보활용능력은 평균 4.12점(최대 5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4.12점(최대 5점), 그리고 진로탐색행동은 3.45점(최대 5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은 대상자의 취업관련 교육참여 $t=2.05$ $p=.042$)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은 정보활용능력($r=.311$, $p<.001$), 간호전문직관($r=.261$, $p<.0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취업관련 교육 참여($\beta=.16$, $p=.022$), 정보통합($\beta=.35$, $p=.015$), 정보윤리($\beta=.30$, $p=.019$)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예측변인의 설명력은 19.8%로 나타났다($F=4.92$, $p<.001$).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향한 다양한 진로탐색의 영향요인으로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을 규명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진로탐색행동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liter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areer exploratory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177 subjects was recruited from June 1 to June 15, 2022,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an scores for information litera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exploratory behavior were 4.12 (maximum 5), 4.12 (maximum 5), and 3.45 (maximum 5), respec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exploratory behavior were observed based on participation in career-related programs ($t=2.05$, $p=.042$). Furthermo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information literacy and career exploratory behavior ($r=.311$, $p<.001$), and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exploratory behavior ($r=.261$, $p<.001$). In addition, participation in a career-related program ($\beta=.16$, $p=.022$), information integration ($\beta=.35$, $p=.015$), and information ethics ($\beta=.30$, $p=.019$)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exploratory behavior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9.8% ($F=4.92$, $p<.001$). The study identifies information liter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s factors that affect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and demonstrates the need for programs that improve the career exploratory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Behavior, Information Literacy, Nursing, Professionalism,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Kim(Daegu Catholic University.)

email: ag0115@cu.ac.kr

Received August 18, 2023

Revised September 13,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 시기는 성인 도래기에 속하며 나이는 약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속한다[1]. 이 시기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전공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과목 교육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예비경험들을 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 탐색이 중요하다[2,3]. 최근 대학의 진로교육전문인력을 양성할 정도로 대학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4].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에 비해 졸업 후에 취업률이 높은 탓에 진로 선택을 할 때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진로탐색활동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5], 임상 등 현장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6] 간호대학생 시기동안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진로결정 및 준비, 취업과 이후 적응 등을 목적으로 자기탐색활동과 환경과 관련된 탐색활동을 포함한다[7]. 진로탐색활동을 많이 할수록 구체적인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으로 이어져 취업 후에도 적응력을 증가시키게 되므로[8] 미래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행동은 중요하며 관련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진로탐색행동은 자신과 외부환경에 대해 점차적으로 지식을 구축하는 활동으로[7],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이 진로탐색활동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9]

정보활용능력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식 및 기술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 및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0]. 이에 정보활용능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현대사회에서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소양이 되고 있다[11]. 정보활용능력은 향후 전문직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정보를 검색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되고[12], 또한 진로탐색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중요하므로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간호의 전문성, 독자성과 사회적 인식 등을 포함하는 간호활동에 대한 직업적 의식을 의미한다[13].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간호전문직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14], 간호전문직관이 높을 때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부기간동안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15], 진로준비에 필수적인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졸업 후 취업유지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진로탐색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9], 진로탐색효능감이 높을 때 진로탐색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일반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진로자기조절과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을 때 진로탐색행동이 높았고[17], 진로관련 멘토링이 직업탐색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진로탐색은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상으로 진로탐색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연구가 소수이고 진로탐색이 충분히 되지 못하면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해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보활용능력은 진로탐색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본 연구는 드물었으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분석하며 해석하여 종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있고[20] 미래 전문직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므로 진로탐색행동에 간호전문직관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의 3학년과 4학년 시기는 취업할 기관을 찾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취업준비를 하게 되는데, 진로탐색행동은 취업을 위해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5]. 이에 간호대학생 저학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로탐색행동 향상에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대학교의 1학년과 2학년 간호대학생 18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 산출은 G-power 3.1.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0.95, 예측변인 8개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60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서면 동의한 180명을 임의표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77부로 회수율은 99.3%였다. 이 중 설문항목 누락 등 답변이 불충분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최종 17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는 최소 표본수인 160명 이상을 만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은 Lee[2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정보활용능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은 정보요구(5문항), 정보검색(9문항), 정보평가(9문항), 정보통합(6문항), 정보표현(3문항), 정보윤리(7문항)의 6개 영역이고 전체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의 연구[11]에서 Cronbach's α 는 0.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0.97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3]이 개발하고 Ham 등

[21]이 수정보완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실무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으로 5개 영역이고 전체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m 등의 연구[21]에서 Cronbach's α 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3이었다.

2.3.3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Choi[2]가 개발한 진로탐색행동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개의 하위영역으로 자기에 대한 탐색(12문항)과 직업에 대한 탐색(16문항)이고 전체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2]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는 0.87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1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D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대학교의 1학년과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소개한 후 서면 동의한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설문조사에 대해 비밀보장과 응답여부에 대한 강제성과 불이익이 없다는 것과 설문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후에 동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였으며, 회수된 177부 중에서 설문 항목이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7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최종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정보활용능력, 간

Table 1. Differences i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p)
Age	Total		19.52±1.30	
Gender	Male	18(10.3)	3.46±0.61	0.10(.921)
	Female	157(89.7)	3.44±0.56	
Academic year	1 st	89(54.9)	3.50±0.50	1.20(.232)
	2 nd	77(44.0)	3.40±0.60	
Religion	Yes	29(16.6)	3.47±0.44	0.24(.807)
	No	146(83.4)	3.44±0.58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a	94(53.7)	3.52±0.57	1.96(.144)
	Moderate ^b	75(42.9)	3.36±0.54	
	Dissatisfied ^c	6(3.4)	3.60±0.51	
Participation in career related program	Yes	45(25.7)	3.60±0.47	2.05(.042)
	No	130(74.3)	3.40±0.58	

M±SD=mean±standard deviation

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52(±1.30)세였고, 여학생이 89.7%로 많았으며, 대상 학년은 1학년 54.9%, 2학년 44.0%였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83.4%로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53.7%였으며,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는 없는 경우가 74.3%로 나타났다 (Table 1).

3.2 대상자의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정보활용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4.12(±0.58)점으로 나타났으며, 6개의 하위영역 중 정보윤리가 4.24(±0.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검색이 4.02(±0.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12(±0.61)점이었으며, 5개의 하부영역 중 간호의 독자성이 4.64(±0.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인식이 3.47(±0.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0.56)이었으며, 자아탐색 3.73(±0.58)점, 직업관련 탐색(3.25±0.68) 순이었다(Table 2).

Table 2. The degree of information litera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175)

Variables	Range	M±SD
Information Literacy	1-5	4.12±0.58
Information need		4.09±0.67
Information retrieval		4.02±0.78
Information evaluation		4.16±0.63
Information integration		4.06±0.69
Information expression		4.18±0.63
Information ethics		4.24±0.69
Nursing Professionalism	1-5	4.12±0.6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38±0.67
Social awareness		3.47±0.75
Professionalism of nursing		4.21±0.70
The roles of nursing		4.35±0.74
Originality of nursing		4.64±0.74
Career Exploration Behavior	1-5	3.45±0.56
Self-exploration		3.73±0.58
Work-related exploration		3.25±0.68

M±SD=mean±standard deviation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t=2.05, p=.042)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4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 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은 정보활용능력과 양의 상관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formation litera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175)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Information Literacy	1													
2. Information need	.862**	1												
3. Information retrieval	.937**	.790**	1											
4. Information evaluation	.949**	.799**	.860**	1										
5. Information integration	.907**	.711**	.833**	.842**	1									
6. Information expression	.858**	.692**	.742**	.799**	.773**	1								
7. Information ethics	.891**	.728**	.770**	.799**	.747**	.766**	1							
8. Nursing Professionalism	.353**	.286**	.308**	.360**	.326**	.313**	.318**	1						
9.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15**	.256**	.262**	.327**	.304**	.252**	.292**	.902**	1					
10. Social awareness	.294**	.237**	.305**	.285**	.263**	.260**	.228**	.781**	.526**	1				
11. Professionalism of nursing	.256**	.119**	.200**	.272**	.238**	.249**	.238**	.880**	.761**	.605**	1			
12. The roles of nursing	.296**	.220**	.242**	.321**	.220**	.289**	.246**	.843**	.750**	.537**	.775**	1		
13. Originality of nursing	.226**	.212**	.152**	.218**	.171**	.214**	.280**	.513**	.466**	.135**	.399**	.434**	1	
14. Career Exploration Behavior	.311**	.280**	.275**	.334**	.349**	.283**	.180**	.261**	.169**	.262**	.271**	.242**	.084	1

* $p < 0.05$, ** $p < 0.001$. 1=Information Literacy, 2=Information need, 3=Information retrieval, 4=Information evaluation, 5=Information integration, 6=Information expression, 7=Information ethics, 7=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8=Nursing Professionalism, 9=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10=Social awareness, 11=Professionalism of nursing, 12=The roles of nursing, 13=Originality of nursing, 14=Career Exploration Behavior.

관계가 있었으며($r=.311$, $p < .001$), 하위영역인 정보요구($r=.280$, $p < .001$), 정보검색($r=.275$, $p < .001$), 정보평가($r=.334$, $p < .001$), 정보통합($r=.349$, $p < .001$), 정보표현($r=.283$, $p < .001$), 정보윤리($r=.180$, $p < .05$)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탐색행동은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61$, $p < .001$), 하부영역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r=.169$, $p < .05$), 사회적 인식($r=.262$, $p < .001$), 간호의 전문성($r=.271$, $p < .001$), 간호실무역할($r=.242$, $p < .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3.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외생변수를 통제한 후 정보활용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취업 관련 교육경험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정보 활용 능력과 간호전문직관 중 진로탐색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인 하위영역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0.175~0.941

Table 4. Factors affecting career exploration behavior

(N=175)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85	.33		5.68	<.001
Participation in career related program(ref:Yes) [†]	.21	.09	.16	2.32	.022
Information need	.13	.11	.15	1.21	.227
Information retrieval	.20	.14	.23	1.44	.151
Information evaluation	.26	.15	.29	1.70	.090
Information integration	.29	.12	.35	2.46	.015
Information expression	.03	.10	.04	.28	.778
Information ethics	.25	.10	.30	2.37	.019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16	.10	.19	1.65	.100
Social awareness	.10	.07	.14	1.54	.126
Professionalism of nursing	.18	.10	.23	1.79	.075
The roles of nursing	.02	.09	.02	.21	.838

$R^2 = .249$, Adj $R^2 = .198$, $F = 4.92$, $p < .001$

Dummy variables: (reference group) participation in career related program=yes

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62~6.411로 10 미만이므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검증 값인 Durbin-Watson 값이 2.07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4.92, p<.001$), 취업관련 교육 참여($\beta=.16, p=.022$), 정보통합($\beta=.35, p=.015$), 정보윤리($\beta=.30, p=.019$)가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진로탐색행동에 대해 예측요인으로 본 취업관련 교육참여,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통합, 정보윤리, 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과 간호의 역할의 설명력은 19.8%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대상자의 정보활용능력은 5점 만점에 4.12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 등[11]의 연구 결과, 3.60/4점보다 높았으며, 도구는 달랐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와 Choi[22]의 3.82/5점과 Yang과 Ahn 등[23]의 3.94/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Kim 등[11]의 연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Park와 Choi의 연구[22]는 2학년, Yang과 Ahn 등의 연구[23]는 3학년과 4학년이었는데 비해 본 연구대상자는 1학년과 2학년임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 시에 학년 구성에 따라 정보활용능력이 다양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각 교육기관별로 교육 과정이 상이하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대상자는 해당 대학에서 1학년 시기에 정보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점이 정보활용능력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대상자의 학년과 과목 수강 여부를 포함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학년별로 유익한 정보교육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활용능력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정보윤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 등[11]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정보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활용능력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키고[12,2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임상수행능력[12]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중요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4.12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ang과 Cho[24]의 3.71/5점과 Park와 Yoo[14]의 3.66/5점보다 높았으며, Ham 등[21]의 연구결과인 3.43/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13,14,21]의 대상자 학년이 3학년과 4학년[13], 1학년에서 4학년[14], 4학년[21]으로 다양하고, 본 연구와 조사시기가 상이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Han의 연구[25]에서 간호대학생 2학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이 4.15/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1학년과 2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저학년 시기에 간호전문직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Park와 Yoo[14]의 연구와 Ham 등[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간호전문직에 대해 간호의 독자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로서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을 높이고[26],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27]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은 5점 만점에 3.45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과 Kim[28]의 2.81/5점, Lee와 Kim[9]의 2.70/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15,28]의 진로탐색행동 결과는 3학년과 4학년[9]이 포함되었으며, 본 연구대상은 1학년과 2학년인 점으로 고려할 때 동일한 연구는 아니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전공교과목과 임상실습 등으로 학업량이 많아지면서 진로탐색행동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Moon과 Kim[16]의 연구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증재전 진로탐색의 정도가 실험군 1.94/5점, 대조군 2.16/5점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대상 학년은 유사하였으나 실험연구이고, 조사대상의 수가 달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학년 등의 변수를 통제하여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과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볼 때 과거에 비해 진로탐색행동의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탐색행동은 올바른 취업준비로 이어지므로[8]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위한 교육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은 취업관련 교육참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Lee와 Kim[9]의 연구에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 시기에 취업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므로[9,16] 진로탐색행동과 관련되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학년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의 차이가 나타난 연구[9,18]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결과가 상이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는 정보활용능력 중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통합, 정보표현, 정보윤리와 간호전문직관 중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역할과 취업관련 교육참여를 예측변인으로 하였고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대해 19.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으며, 취업관련 교육 참여($\beta=.16, p=.022$), 정보통합($\beta=.35, p=.015$)이 유의미하였다. 정보윤리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전공만족도[9], 진로탐색효능감[16], 진로결정자율성[9,17], 그리고 진로관련 멘토링 등이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으나, 진로탐색행동은 자기 자신과 직업환경에 대한 탐색활동이므로[9]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활용능력은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활용능력은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22] 올바른 진로결정이라는 문제를 위한 진로탐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Lee와 Kim[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14],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준 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하부영역 중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 정보통합과 정보윤리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할 중요한 결과로 여겨진다.

진로탐색은 대상자 스스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바람직한 진로결정을 위해 주변환경을 탐색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18] 취업기관 지원과 면접 전에 충분히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진로탐색행동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복잡한 의료환경속에서 간호사가 되었을 때 취업현장에서 전

문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9] 저학년 시기인 1학년과 2학년 시기부터 진로탐색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과 간호전문직관과 그리고 진로탐색행동을 증가시키고 향상하는 것은 향후 임상간호사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사로서 전문직을 수행하는 훌륭한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과 이론 및 실습지도자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16] 간호대학생의 특성과 시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병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취업영역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구체적인 대한 탐색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는 진로탐색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정보활용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간호전문직관과 진로탐색행동의 정도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학년과 2학년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본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통합, 정보표현, 정보윤리,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역할과 취업관련 교육참여는 진로탐색행동에 대해 19.8%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취업관련 교육참여, 정보통합, 정보윤리가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보활용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향상을 포함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타 지역과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정보활용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을 살펴 본 연구가 미흡하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기초자료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진로탐색은 학년별로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진로탐색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적합한 교과 또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J. Arnett,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5, pp.460-480,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2] D. S. Choi, C. Y. J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motivational factors and attachment of undergraduate stud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2, No.1, pp.115-143, 2003.
UCI: G704-000975.2003.22.1.008
- [3] G. V. Hoyer, "Job-search behavior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a review of different job-search behaviors and sources", In book: *Oxford Handbook of Job Loss and Job Search(in p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59-274, 2014.
DOI: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764921.013.009>
- [4] J. H. Lee,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professional manpower capacity building training for college career education, [Internet]. University News Network, 2022, [cited 2022 August 29], Available From: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3030> (accessed Jul. 20, 2023).
- [5] H. M. Son, Y. K. Hong, Y. H. Kim, "Career exploration process of nursing student in clinical practice: A voyage to Find the authentic nurse of pre-registratio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69-82,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1.69>
- [6] K. A. Lee,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2, No.1, pp.42-49, 2015.
DOI: <https://doi.org/10.16952/pns.2015.12.1.42>
- [7] D. L. Blustein,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30, pp.111-117, 1989.
- [8] D. H. Kim, S. H. Kang, "Moderation effect of food service business owners' personality factor between career anchor and career succes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5, No.1, pp.29-50, 2015.
DOI: <https://doi.org/10.35273/jec.2015.5.1.002>
- [9] Y. J. Lee, Y. S. Kim,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autonomy, and career search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4, pp.474-485, 2017.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7.23.4.474>
- [10] A. Smedley, "The importance of informatics competencies in nursing: An Australian perspective", *CIN: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Vol.23, NO.2, pp.106-110, 2005.
DOI: <https://doi.org/10.1097/00024665-200503000-00011>
- [11] J. A. Kim, H. N. Kim, S. H. Park, S. H. An, M. H. Yoo, H. J. Lee, G. E. Choi, S. Y. Choi, J. Y. Ha, S. H. Hong, "A study on the information literacy of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 importance of self-leadership",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Vol.-, No.49, pp.33-49, 2015.
- [12] M. J. Jo, M. O. Gu, "Convergence study of influence of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2, pp.495-507,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12.495>
- [13]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6, No.5, pp.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14] M. J. Park, H. N. Yoo,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38-47,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1.38>
- [15] S. J. Park, I. S. Par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1, No.3, pp.67-87, 2021.
DOI: <https://doi.org/10.35273/jec.2021.11.3.004>
- [16] I. O. Moon, H. S. Kim, "The effect of career search programs on career search 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3, pp.393-402, 201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2.18.3.393>
- [17] M. J. Kim, B. W. Kim,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self-regul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rational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7, No.3, pp.27-45, 2014.
UCI: G704-001285.2014.27.3.009
- [18] Y. I. Kw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related mentoring and college students' job search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3, pp.93-112, 2017.
DOI: <https://doi.org/10.32341/JCER.2017.09.30.3.91>
- [19] K. Y. Suh,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explora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9, No.4, pp.95-114, 2019.
DOI: <https://doi.org/10.35273/jec.2019.9.4.005>
- [20] H. Y. Lee, T. W. Nam, "The study on undergraduates' information literacy scale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2 No.4, pp.503-532, 2008.

DOI: <https://doi.org/10.4275/KSLIS.2008.42.4.503>

- [21] Y. S. Ham, H. S. Kim, I. S. Cho,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536-544,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536>
- [22] S. H. Park, H. S. Choi, "Effects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Vol.17, No.2, pp.99-106, 2022.
DOI: <https://doi.org/10.15715/kihcom.2022.17.2.99>
- [23] S. J. Yang, M. K. Ahn,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information liter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7, pp.113-127, 2020.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7.113>
- [24] B. H. Kang, H. Y. Cho, "Mediating effect of moral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9, No.2, pp.180-189, 202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2.180>
- [25] S. H. Han, "The effecting factors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pp.353-363, 2018.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12.034>
- [26] H. O. Jeo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171-181,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71>
- [27] S. H. Han,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7, pp.379-389, 2018.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7.038>
- [28] H. Y. Kim, B. M. Kim, "Effects of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n career search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Vol.7, No.3, pp.15-22, 2021.
DOI: <https://doi.org/10.20465/KIOTS.2021.7.3.015>

김 은 희(Eun-Hee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4년 8월 : 영남이공대학교 조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만성질환간호, 임상연구간호, 간호교육